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에서 전력, 석탄, 금속공업과 철도운수 부문을 확고히 앞세우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리명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경제강국건설에서 전환의 돌파구를 열자면 전력, 석탄, 금속공업과 철도운수부문이 총진격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려야 합니다.》

현시기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에서 전력, 석탄, 금속공업과 철도운수부문이 맡고있는 임무는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오늘의 총진격에서 전력, 석탄, 금속공업과 철도운수부문을 확고히 앞세우는것이 나라의 전반적 경제건설을 정상화하고 활성화해나갈수 있는 관건적고리로 되기때문이다.

오늘 우리 나라에 마련된 주체공업의 토대는 강력하며 그것만 효과적으로 리용하여도 지금보다 생산을 훨씬 늘여나갈수 있다.

이미 마련된 주체공업, 사회주의자립경제의 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생산을 정상화하고 활성화해나가자면 무엇보다도 인민경제의 선행부문인 전력, 석탄, 금속공업과 철도운수부문부터 추켜세우고 확고히 앞세워야 한다.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에서 전력, 석탄, 금속공업과 철도운수부문을 확고히 앞세우는데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먼저 전력문제를 해결하는데 전당적, 전국가적힘을 넣는것이다.

우선 지금 있는 발전소들에서 발전설비들을 정비보강하고 만부하로 돌려 전력생산을 최대한으로 늘이며 발전능력을 새로 더 조성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수력발전소들에서 수차효률을 높이고 수력구조물보수를 질적으로 하며 발전소운영을 컴퓨터화하여 전반적인 수력발전효률과 가동률을 높여야 한다. 한편 화력발전소들을 현대적기술로 개선하여 발전효률을 높이고 그 수명을 늘이며 선진적인 정보기술을 받아들여 전력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는것이 중요하다.

지금 진행하고있는 단천발전소건설을 비롯하여 발전능력을 새로 더 조성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새로운 발전능력을 조성하기 위한 대규모수력발전소건설과 중소규모수력발전소건설을 대대적으로 통이 크게 밀고나가는것은 긴장한 전력문제를 풀기 위한 중요한 방도이다.

수력자원은 우리 나라에서 기본동력자원의 하나이다.

우리는 당의 의도대로 크고작은 강하천이 많은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온 나라의 풍부한 수력자원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발전능력을 더 조성하여야 한다.

그러자면 수력자원개발이 예견되는 대상들의 자원량을 과학적으로, 구체적으로 확정하며 새로 개발할수 있는 대상들을 더 찾아내고 수력자원량을 최대한 확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운영중에 있는 수력발전소들의 저수능력과 생산능력을 재평가하고 늘이며 물자원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자연에너지네를 적극 리용하여 긴장한 전력문제를 풀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자연에너지를 적극 개발리용하는것은 전력문제해결의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자연에너지는 그 자원이 대단히 풍부하다. 이것은 태양에너지와 풍력에너지, 지열에너지만 놓고보아도 잘 알수 있다.

태양은 무진장한 열원천을 가지고있다. 태양이 지구겉면에 보내주고있는 열은 무려 2억t의 석탄을 태울 때 나오는 열량과 맞먹는데 이 량은 세계 총에너지소비량의 1만배 이상에 달하는 방대한 량이다. 태양에너지는 풍부할뿐아니라 환경오염이 없는 가장 좋은 에너지인것으로 하여 태양열에 의한 전기생산은 현시기 세계적추세로 되고있다.

풍력발전은 바람의 힘을 리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방식으로서 현시기 환경보호와 전기문제가 절박하게 나섬에 따라 세계적으로 매우 중시되고있으며 동력체통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세계기상기구가 밝힌 자료에 의하면 지구 전체에서 실지 리용할수 있는 풍력자원의 총량은 약 200억kW이다.

지열에너지는 땅속에 있는 열을 원천으로 하는 에너지이다. 지열자원은 무진장하며 고갈될 우려가 없다. 지구내부에서 겉면으로 방출되는 열량은 해마다 30억t의 석탄이 탈 때 내는 열량과 같으며 지구겉면으로부터 10km 깊이에 있는 지열은 지구상에 매장되어있는 석탄이 탈 때 내는 열량의 2 000배나 된다고 한다.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지열에너지를 비롯한 자연에너지를 적극 리용하자면 이 분야에서의 과학연구사업을 힘있게 벌리며 그에 필요한 모든 물질기술적조건을 충분히 마련해주어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자연에너지를 리용하여 이미 큰 덕을 보고있는 인민경제 여러 단위들의 성과와 경험을 본받아 제때에 자기 단위에 받아들이기 위한 혁명적대책을 세워야 한다.

또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생산된 전기를 극력 절약하고 효과있게 쓰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켜야 한다.

생산된 전기를 극력 절약하기 위하여서는 과학적인 전력관리체제를 실현하여 전력낭비를 줄이고 전력생산과 소비에 대한 통일적인 실시간관리를 진행하여야 한다.

중앙에서부터 도, 시, 군들에 이르기까지의 전반적인 송전계통과 전국의 수많은 공장, 기업소, 단위들에 이동통신에 의한 전력관리, CNC부하전력관리체제 및 원격조종말단장치 도입과 카드식전선전력계의 도입 등 여러가지 현대적인 과학기술적방법들을 대대적으로 받아들이야 한다.

중요단위들에 대한 교차생산조직표를 완성하고 그를 엄격히 준수하기 위한 사업을 강하게 내밀어야 한다. 나라의 전력생산량에 맞게 전력공업성에서는 선로별교차와 지역별교차를 기동적으로 조직하는 한편 해당 부문, 해당 단위들에서는 자체의 생산특성을 고려하여 시기별, 공정별, 기계설비별교차생산조직을 치밀하게 하고 무조건 철저히 준수하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한다.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에서 전력, 석탄, 금속공업과 철도운수부문을 확고히 앞세우는데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석탄공업부문에서 생산적양양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화력발전소들과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필요한 석탄을 충분히 보장해주는것이다.

석탄공업을 확고히 앞세워 석탄만 충분히 생산보장하여도 전력생산을 훨씬 늘려 금속공업과 철도운수를 빨리 추켜세울수 있으며 화학공업을 발전시켜 인민생활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수 있다.

나라의 전력생산에서 큰 몫을 차지하는 복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를 비롯한 화력발전소들에서의 전력생산은 석탄을 어떻게 대주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화력발전소들에 석탄을 충분히 대주어야 발전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여 전력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수 있다. 석탄은 그 물리화학적성질로 하여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기술공정용연료로, 필수적인 원료로 리용되고있다.

석탄이 많아야 금속공장과 화학공장들에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 건재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켜 건설의 대번영기를 끊임없이 이어나가려는 당의 구상을 현실로 꽃피울수 있으며 경공업공장들에서 생산을 빨리 늘여 인민들의 늘어나는 소비품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다.

석탄공업부문에서 생산적양양을 일으키는데서 중요한것은 매장량이 많고 채굴조건이 좋은 곳에 투자를 집중하고 새 탄광개발, 갱건설과 침수갱복구사업, 고속도굴진운동을 힘있게 벌려 생산능력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탄광들의 지질 및 생산조건에 맞는 합리적인 발파방법, 채탄방법을 받아들이고 설비들을 대형화, 현대화, 고속도화하며 생산과 기업관리의 정보화를 적극 실현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에서 전력, 석탄, 금속공업과 철도운수부문을 확고히 앞세우는 데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금속공업부문의 금속공장들에서 주체화, 현대화의 성과를 계속 확대하여 철강재생산을 늘이는것이다.

금속공업은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요구되는 금속자재를 생산보장하는 기초공업부문이다. 인민경제의 그 어느 부문에서나 금속자재를 요구하지 않는 부문이 없으며 그에 대한 수요는 날을 따라 끊임없이 늘어난다.

금속공업부문에서 철강재생산을 늘이자면 금속공장들의 설비를 현대화하고 원료, 자재보장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그리고 금속공업부문에 대한 국가적인 보장대책이 세워지는데 맞게 연속생산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금속공업부문에서 리용하는 설비들은 대체로 전기로를 비롯한 연속생산설비들인것만큼 교대당 설비리용기준시간, 연간 설비보수형태와 설비보수주기를 비롯하여 이미 정해진 설비관리의 요구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그리고 교대수와 교대당 인원수규정을 비롯하여 로력조직을 짜고들어 교대당 생산의 효과성을 높여 집단적경쟁열풍속에 더 높이, 더 빨리 비약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에서 전력, 석탄, 금속공업과 철도운수부문을 확고히 앞세우는 데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철도운수부문에서 규률을 강화하고 수송조직과 지휘를 개선하여 열차의 정상운행을 보장하며 철도의 현대화를 힘있게 다그치는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화물수송의 대부분을 담당하고있는 철도운수는 인민경제 여러 부문과 단위들사이의 생산적연계를 현물적으로 보장하는 인민경제의 선행관이다. 그러므로 철도운수가 없이는 사회적생산이 진행될수 없다.

생산을 진행하자고 해도 수송수요가 제기되며 생산된 제품을 실현하자고 해도 수송수요가 제기된다.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생산이 늘어날수록 생산소비적수송수요도 끊임없이 늘어나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수송이자 생산이며 생산이자 수송이라고 말한다.

철도운수를 발전시키지 않고서는 날로 늘어나는 인민경제의 수송수요를 원만히 보장

할수 없으며 공장, 기업소들에서의 생산정상화도 실현할수 없다.

철도화물수송계획화의 대상을 바로 정하고 계획화체계를 정연하게 세우며 화물수송 수요와 철도수송능력을 잘 타산하여 균형을 철저히 보장하여야 한다.

집중수송, 집합수송, 련대수송을 비롯한 합리적인 화물수송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이고 발전하는 현실적조건에 맞게 그 조직과 방법을 더욱 개선해나가야 한다.

철도의 현대화를 보장하는 문제는 생산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긴장한 화물수송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는 문제와 직접적으로 련관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철도의 현대화는 기관차와 화차, 철길레루를 비롯한 철도운수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높은 수준에서 보장함으로써 화차의 회전수와 단위당 수송량을 늘이고 회귀일수를 줄일수 있게 한다.

철도의 현대화를 보장하자면 기관차와 화차의 수송능력을 최대로 높이기 위한 과학 기술적문제들과 철도선에서의 짐흐름적특성에 맞게 짐싣고 부리는 작업량과 작업시간의 최대한의 단축 및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한 경제기술적문제들을 비롯하여 철도화물수송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과학기술의 힘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철도의 현대화를 보장하자면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철도운수부문의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공정의 자동화, 지능화, 무인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확고히 앞세우며 근로자들의 과학기술보급실운영을 정상화하여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의 생활력을 더 높이 발휘해나가야 한다.

전력, 석탄, 금속공업과 철도운수부문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자강력제일주의정신을 뼈에 새기고 경제건설에서 생산적양양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림으로써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에서 최전성기를 열어나가야 할것이다.